

보고는 어쩌면 여호수아와 갈렘이 4 년 전에 보고했던 내용과도 비슷한 것이다. 그들의 동태 내용을 토대로 곧장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달리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행했던 것이다. 아마도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 우스꽝스런(?) 전법을 행할 때 비평하거나 비웃거나 또는 불평하면서 했더라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장군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였고 거기에는 아무런 잡음이 없었다. 또 요단강 도하 작전은 어떠했는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갈 때 기적적으로 물이 말라서 모든 병사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안전하게 도강하게 되었다. 무려 21시간 이라는 긴 시간동안이었다. 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길갈에다 새로 진을 치고 본격적인 전략을 시작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하고 말았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여호수아 5장 1절 참조). 그들은 요단강이 외부의 침입을 막아 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인데 이게 웬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평지를 걷듯이 유유히 강을 건넌다니 말이다.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다시 진을 쳤다. 여리고성에서 길갈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으니까 성안에서 길갈을 뻗히 내려다 볼 수 있었다. 보면 볼수록 그들은 무서워졌다. 구름떼처럼 장사진을 이루고 행진하는 사람들! 아무리 여리고 성문을 단단히 닫아 놓았더라도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고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의 사기는 땅으로 떨어졌다.

자, 여호수아 장군의 기막힌 전략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였고 기상천외한 것이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포위된 성을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과 병사들이 아주 조용하게 돌고 진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병사들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었고 그들의 두려움을 알고 싶었다.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연 추측 할 수 없었다. 제 7일째 되는 날은 아침새벽부터 시작해서 성을 일곱 번을 돌며 나

팔을 길게 부르면서 백성들에게 목청이 터져라 하고 소리를 지르게 하였다. 몇 명이나 이 함성에 동참했을까? 60만명? 백만명?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 (다만 민수기 1장 46절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가 육십만 삼천오백 명이였다고 한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었다. 어떤 학자는 그때 흑지진이 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왜냐 하면 지진날 수 있는 Fault line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또 거기 지형이 rift valley(a valley with very steep sides, formed by cracking and slipping surfaces)였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지진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추측일 뿐이다. 나는 다른 측면에서 이 사실을 설명해 보려고 한다. 물론 내 추측이 꼭 맞는다고는 보지 않는다.

창세기에 창조된 빛과 공기와 물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없어지고 영원한 빛만 있게 된다고 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창조된 빛 공기 물은 영원한 나라에는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빛만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창조된 빛은 과학적으로 전자파(Electro magnetic wave, EM wave)라고 한다. 몇 년 전에도 말했듯이 이 전자파를 횡파(Transverse Wave, TW)라고도 부른다. 이 횡파의 예로는 Radio wave, Microwave, TV signal, 전등, 현광등, Laser, 그리고 햇빛 등이다. 이 횡파에 대조되는 종파(Longitudinal Wave)가 있는데 그 예로는 음파, 지진파, 쓰나미, 충격파 (shock wave) 등을 들 수 있다. 여리고성 앞에서 몇 만 명이 아니라 몇 십만 명이 우렁차게 불러대는 그 큰 소리가 여리고성 계곡을 따라 산울림이 되어 자연공진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충격파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내가 조사한 제 7일째의 상황은 이러하다. 그 시기

PARK Fine Art
 The Galeria 20 First Plaza NW Suite 27
 Albuquerque, NM 87102 문화센터 강의 안내

성인, 주부취미반 (유화-oil painting과 파스텔화)
입시반 (포트 폴리오준비반, 뎃생반)

강사: 박영숙
 서양화가, 컬러리 Director,
 UNM CE oil painting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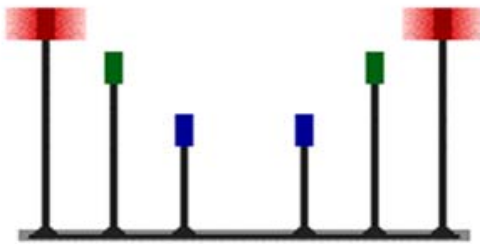
☐ 자세한 안내 문의 ☐
 컬러리: (505) 764-1900 휴대전화: (505) 681-3859
 www.parkfineart.com E-mail: contact@parkfineart.com

ICHIBAN
 Japanese Restaurant

一番 Japanese Food & Korean F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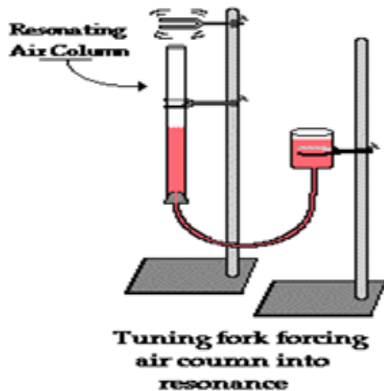
Phone (505)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는 3, 4월로 막 우기가 끝이 나는 봄이었다고 한다. 요단강 수위가 상당히 높을 때 였다. 그런데 아무 사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잘 건넜던 것이다. 이 사실은 성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가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여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소가 바로 여호수아가 도강했던 장소라고 하니 우연도 기막힌 우연이라고 본다. 1400 여년 후에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가 기적적으로 건넜던 바로 그 장소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니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와와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한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여호수아"가 동일한 뜻을 가졌다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였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영원한 복지인 천국으로 인도 하신다. 여기에 여호수아의 업적을 더 든다면 루비딤 에서 아말렉 군사들을 쳐서 큰 공을 세웠고(출애굽기 17장 8-16절) 위에서 언급했듯이 12 명의 정탐꾼 중의 일원으로 가나안 땅을 수색 했던 적이 있었



The vibrations of the red bob forces the other red bob into resonance - large vibrations at the same frequency.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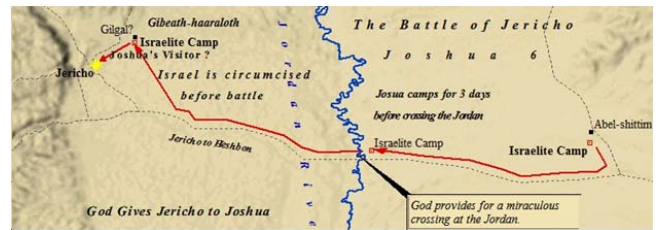


Tuning fork forcing air column into resonance

위의 그림들은 자연공진의 예들 이다. 첫 번째 그림이 보이는 것은 왼쪽 빨간 추(Bob)를 탁 때리면

그것이 진동하기 시작하는데 오른쪽 빨간 추가 그 무게와 길이가 왼쪽 추와 꼭 같으면 같이 진동한다는 것이다. 빨간 추의 공진 주파수가 낮은 것을 나타낸다. 또 녹색 추를 때리면 그 추의 고유 주파수로 공진이 일어난다. 둘째 그림은 tuning fork의 주파수와 air column의 주파수가 맞으면 공진이 일어나서 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무슨 연관이 되는지가 궁금할 것이다.

첫째 가능성은 자연공진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고, 둘째 가능성은 마치 폭탄이 터지면 인근에 있는 유리창들이 shock wave(충격파)로 깨지듯이 그런 충격파로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 된다. 음파가 전달되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오래전에 Memorex(?) 회사의 광고에 어떤 소프라노 가수가 음이 높은 노래를 부르니까 유리컵이 깨지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다. 이것도 자연공진의 한 예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이 있으시다고 믿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기적이 일어났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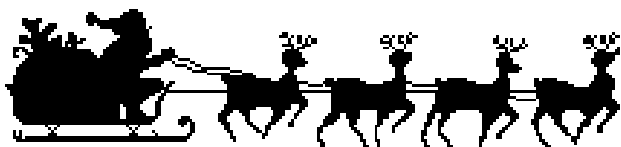
(여호수아의 여러고성공격로)

여리고성은 인간 역사상 제일 오래된 도시였고 해면(Sea level)에서 300미터나 더 낮은 곳에 있었다. 성벽은 진흙과 짚으로 구축되어 있었고 두겹으로 되어 있었다. 위에서 말했듯이 비가 많이 와서 성벽은 단단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자연공진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다. 자연공진(Natural Resonance)이 일어났던 예가 있다. Washington주에 최초로 건설되었던 suspension bridge, Tacoma Narrows Bridge가 있었다. 그런데 1940년 11월 7일 이 다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너지고 말았다. 아무도 그 다리가 무너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므로 큰 이슈로 대두되었다. 여러 물리학과 공학자들이 그 이유를 규명하느라고 고심한 끝에 생각해 낸 것이 자연공진이다. 우리 전자공학에서는 공진회로를 많이 사용한다. 이거 또 골치 아픈 것이므로 그저 말로만 한다면 공진이 일어나면 그 회로 안에 큰 에너지가 저축된다. Tacoma bridge는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서 에너지가 공급되었는데 그 다리의 길이와 중량 등이 공진 조건에 맞아서 진폭이 커져서 그만 무너졌던 것이다.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정탐꾼들을 여러고성 안으로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도왔던 공을 빼 놓을 수가 없다. 라합은 기생인지라 성내의 여러 가지 소식을

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여호수아의 밀사 두 사람이 성안에 잠입했을 때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면서 그가 아는 소식들을 전했다. 공교롭게도 그녀의 집은 성벽에 붙어 있어서 정탐꾼들은 붉은 밧줄을 타고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이 사실을 밀사들은 여호수아 장군에게 자세히 설명했고 그 결과 그녀의 가족은 구조되었다. 그 외의 모든 거민들은 다 살상되었다. 또 하나 희한한 사실은 성벽이 여기저기 무너졌는데 라합의 집벽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붉은 밧줄로 인해서 그녀의 집임을 알았다고 한다. 라합은 기생으로 아주 천한 생활을 했었지만 이후 이스라엘 남자 살몬과 혼인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 쪽 내려와서 다윗왕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리고성과 같은 큰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고 전쟁을 치뤄야 할 때가 있다. 우리들의 여리고성은 어떤 것일까? 우리들의 기독교적인 사랑, 기쁨, 평화, 믿음, 자유 등을 빼앗으려는 여리고성은 무엇일까? 첫째로 사람들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악한 말, 독 있는 말들이다. 요한 일서 2장 15-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니라”** 하였다. 둘째는 우리들의 욕심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야고보서 1장 15절)”** 하였다. 욕심에 못 이겨 양심을 팔아먹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인간본능의 욕심 말이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 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였다. 셋째로 사탄이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들이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였다.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여러 장애물들에게 부딪칠 때 누구를 생각하자유??? 두말 할 것 없이 여호수아 장군을 생각하고 그를 본받으려고 노력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여호수아 장군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실천해서 모세도 그렇게 가기를 소원했지만 가지 못 한 그 땅,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아름다운 가나안 복지에 승승 장군으로 들어간 것이다.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지요?



여호수아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 !!!

남겼나? 밀졌나? (마태 25 : 19- 30)

김정근 목사

오늘 말씀의 내용은 청지기의 도리를 일깨워주는 이야기인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그들의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해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12월 첫 주일이니까 이 해도 한 달이 채 안 남았네요. 교회 생활로는 사흘 밖에 안 남았어요. 교회 생활은 일 주일이 하루니까요. 사흘 밖에 안 남은 올해 신앙생활의 연말 결산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첫째 :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원을 말합니다.

고전 4:7에 보면 (267 쪽)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생명도 건강도, 가족도 미모도, 학식도 재능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곧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를 우리가 지난 일년 동안 잘 선용하여 맡겨 주신 하나님에게 +가 되게 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내게 +가 된 것은 많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가 된 것이 얼마나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면 게으른 종일 것이고, 잘 활용은 했는데 자기에게만 +가 되고 맡겨 주신 하나님에게 +가 되게는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악한 종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로마 12:6-8(256쪽)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의 은사이면 믿음의 분수 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 하는 자는 권위 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각기 다른 달란트를 선하게 사용하여 충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 재주도 없어. 내가 받은 달란트가 뭐 있나, 남 만큼 공부를 많이 했나, 남들처럼 영어를 할 줄 아나, 자동차 운전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봉사를 하나?”**라고 합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질러놓은 과자 부스러기나 휴지를 주울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히터를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 놓은 채 열려있는 문이나 창을 닫아주는 일 같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영어 못해도 운전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둘째 :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이라는 달란트입니다.

에베소 5: 16(315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 King James Version에는 redeeming the time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redeem이란 말은 노예를 몸값을 치르고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을 돈을 주고 사듯이 소중히 여겨 선용하라는 뜻입니다. Today's English Version에는 make good use of every opportunity you have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할 기회, 이웃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노치지 말고 잘 선용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일할 기회나 봉사할 기회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받았습니 다. 지난 일년 동안 이 시간의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 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얼마나 어떻게 선용했는 냐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의 6/7을 나를 위해 쓰고 1/7은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했습니다. 옛세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하고 이레 중 하루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한 날(성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년 동안

주일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업 때문 에 주일을 잘 못 지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떳떳한 듯이 말합니다. 생업이 내가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는 그렇다 치고 내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생업을 핑계 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취미 생활 때문에 주 일을 지키지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자신을 위해서는 충분히 활용하면 서 하나님 을 위해서는 너무나 인색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할 시간 까지 내가 다 가로채 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을 지 모르나 이 다음에 그것이 잘되는 길이 아니요 내 영혼을 망하게 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쪼개서 주님의 일을 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도 커집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아무것도 희생한 것이 없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1/7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희생도 아닙니다.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혹 잘 몰라서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셋째 : 물질이라는 달란트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이라는 달란트에 대해서는 꽤 지혜롭게 관리를 하느라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는 머리로 쓰고 신경도 쓰면서 맡겨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시간은 1/7을 물질은 1/10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일조는 구약 시대의 율법이지 오늘에는

앨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이사현 회장(505-271-8031)

§월모임:매월 세 번째주 금요일 오후 7:00 pm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주기도회: 매주 505-239-4401

§성서모임: 매주 505-515-4211

뉴멕시코 성경교회

서종철 목사

주일에배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시간: 5:30 am (매일)

§장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505) 238-3551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도강국 목사

주일에배 1부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에배 2부 §시간: 2:00 pm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목사

주일에배 §시간: 11:00 am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김익석 목사

주일에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Tue-Fri)

성경공부 §매주 월요일 10:30 am (한인회관)

§장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NM 87123

(505) 903-2297

앨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찬 목사

주일에배 (Worship)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진경일 목사

주일에배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505-453-5461

앨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윤정렬 목사

주일에배 §시간: 오전 9:00 am §시간: 오전 11:00 am

주일학교 §시간: 오전 11:00 am

§장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505)

238-3551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시간:

§장소: 405 N. Connelly St, Clovis (575)-762-4510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십일조를 율법으로 제시 하시지는 않았습니 다. 그러나 마태복음 23:23(4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쟈니라"고 하 셴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너희가 십일조는 사소한 것까지 정확하게 드리면서 못지 않게 중요한 공의와 자비와 성실은 버렸구나. 그러나 십일조도 드 리고 공의와 자비와 성실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말 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 경에서 십일조를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십일조는 그들의 생활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교회 안 에 "No Smoking!"이란 Sign이 없는 것은 교회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 고 있으니까 그런 Sign을 부칠 필요가 없는 것과 꼭 같은 이치 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인 것을 분명히 아셔 야 합니다. 혹 어떤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 고, 내가 내가 밤잠 안자고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 모 은 것이지 언제 하나님이 돈 보따리 내게 안겨 주셨느냐고 할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여 건과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건강이지 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번 것 이니까 내 것이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 게 얼마 동안만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California, Van Nuys에 있는 오래 된 제일 침례교 회라는 미국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처음 개척 하신 휘케트 목사님의 일화에서 큰 충격과 도전을 받 았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으로 거 슬러 올라갑니다. 그 교회에 주일학교 유년 부장을 하 는 열심 있는 젊은 집사가 있었습니다. 가게를 2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착실하 게 돈도 잘 벌었습니다. 교회 에도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집회 마다 빠짐 없이 참석 하고 교회 일에도 충성스럽게 봉사 했습니다. 매 주일 \$100 씩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하면 \$1,000도 더 될 것입니다. 이 집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로 사업이 번창하여 가게가 셋으로, 넷으 로, 다섯으로 늘어났습니 다. 자연히 일이 많아지고 시 간도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일에 열 심을 덜하게 되었습 니다. 하루는 유년 부장 직 사표 를 써가지고 목사님에게 와서 사업상 너무 바빠서 더 이상 직임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사임 하겠다고 하드랍 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 그 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 집사는 사업을 더 확장하고 돈도 더 많이 벌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재정부 현금 보고서를 보다가 여러 해 전에 가게 들 가지고 있을 때 십일조 \$100 하던 이 집사가 지금은

가게 다섯을 가지고 사업도 활발한데 십일조는 변함 없이 \$100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 를 마치고 그 집사를 목사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 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신앙 생활과 건강은 잘 관리 하는지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두루 물었습니다. 그 집사는 목사님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덕분 에 하나님의 은혜로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된다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사업도 크게 확장 되고 잘 되어 감사한데 십일조는 어째 가게 들 있을 때나 똑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 가 십일조에 대한 자기 논리를 주장합니다.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십일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 다. 돈을 조금 벌 때는 간단 하지만 많이 벌면 쉽지 않다는 것 입니다. \$1,000 벌 때 \$100 내기는 쉽지만 \$10,000 벌 때 \$1,000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100,000 벌 때 10,000 내기는 더 어렵습니다. 목 사님이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 교회 재정이 빠듯했지만 지금은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 제가 십일조를 더 드리지 않아도 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 까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함께 기도 합시다. 이 집사는 목사님이 자

BBVA Compass 뉴멕시코 주에서 은행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한국말을 하는 김미경씨를 만나보세요.

Think getting a mortgage should be
easy? So do we.

Here's an overview of what we can offer you:

- * Professional Program financing up to \$1 million with low down payment for Doctors, Dentists, CPAs and Attorneys.
- * First Time Home Buyer Program make no payment for 3 month, low down payment, and pay no origination or other lender fees
- * Government Loans FHA and VA loans
- * Construction Loans OneConstruction/Perm, Renovation/Perm and Lot Loans
- * Primary residence and second home financing, including noncondos (no condotels)
- * Variety of repayment terms available
- * Super Jumbos financing available up to \$5 million
- * Foreign Nationals (nonresidents) financing available up to \$1 million USD on single family residences and condominiums'
- * Convenience apply onlin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n addition to simplicity and options, at BBVA Compass you'll get competitive rates and outstanding service. So whether you're buying your first or fifth home, getting your next mortgage will be easier than you ever imagined at BBVA Compass.

Mi Kyong Kim Mortgage Banking Officer
전화번호 505-206-9963
mikyong.kim@bbvacompass.com
www.bbvacompass.com/mortgages/mkim
NMLS# 512561

기의 주장을 이해 해 주시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좋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집사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 기도를 안 들어 주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 ○ 집사가 가게 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시간도 내서 주님의 일에 열심 히 봉사도 하고 십일조도 잘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게가 너무 많아져서 주님을 위해 시간도 내기 어려워졌고 수입이 너무 많아져서 십일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이 영혼 멸망 할까 두려우니 예전의 믿음 과 열심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가게 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 주시옵소서” 이 대목에서 이 집사가 황급히 목사님의 기도를 가로막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의 기도는 들어주지 말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제부터 잘 하겠습니다. 전에 떼어먹은 것까지도 다 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목사님의 기도는 못들은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회개 하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십일조를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십일조를 설교하는 것은 단순히 교화 재정 불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복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8-10(1,330쪽)에 분명히 말씀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너희가 나(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고 있다”.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당신(하나님)것을 도적질 하였습니까?” 하고 묻는다. 십일조와 예물(헌금)이 바로 그 것이 아니냐?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므로 너희 모두, 너희 온 나라에 저주가 있다.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나를 시험하여 보고 내가 하늘의 창고 문을 열고 너희에게 필요한 대로 복을 쏟아 붓지 않나 보아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성도들이 복 받는 길을 등지고 망 할 길로 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바른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직무 유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는 길을 알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말 잘 듣는 자녀가 더 사랑스럽고 뭐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꼭 같지 않을까요?

넷째 : 복음의 달란트를 받았습니.

바울은 로마 1:14 (239쪽)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

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고 고백하며 이 빛을 갚기 위해 일생을 복은 전도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전서 9:16 (274쪽)에서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할 찌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복음의 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지난 일 년 동안 복음의 달란트에 대한 결산도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음 전도에 힘썼습니까?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증거했습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활용 했습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 몇 시간이나 쓰셨습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 쓴 돈은 몇 달라나 됩니까?

지난 일년간 내게 맡겨주신 건강, 재능, 시간, 물질, 복음의 달란트를 활용한 열매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모두 내놓을 때 얼마나 남겼는지? 남긴 것이 아무 것도 없는지? 혹은 본전에서 밀지지는 않았는지? 마음속으로 셈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 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합니까? 아니면 1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것 같습니까? 금년도 나의 신앙생활의 연말 결산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책망을 받았을까 생각해 봅시다.

첫째 : 자신의 재능을 잘 몰랐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과대 평가 했을 런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5 달란트, 2 달란트를 주었는데 왜 내게는 달랑 한 달란트 뿐인가? 나도 5달란트, 적어도 2 달란트 짜리인데 왜 1 달란트 짜리 취급을 하느냐 하는 불 평이 있었을 런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각기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 달란트 짜리 밖에 안되었습니

다. 교회 안에서도 더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중직을 맡길 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 중직에 임명하지 않는다고 빼치고 시험 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달란트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받은 대로, 받은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1 달란트만 남기면 됩니다. 그에게 2 달란트, 5 달란트 남기기를 주인이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둘째 : 주인이 너무 엄하다는 핑계 입니다. 이 사람은 책임 회피부터 미리 생각한 사람 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평탄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싫은 소리도 듣고 잘못 되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 미리 피하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적은 것을 맡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 안일무사주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밀천가지고 아무리 애써봐야 성과도 별로 없을 것이니 칭찬 받기는 그렸고 그나마 잘못하면 책임은 피할 수 없으니 본전이나 지켜야겠다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1년 마지막 달에 들어선 첫 주일, 주님 앞에 겸허하게 손을 모으고 지난 한 해 신앙 생활의 열매들을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이익을 남긴 흑자 성도인가? 하나님의 기대보다 밀진 적자 성도인가? 흑자도 적자도 아닌 제 자리 걸음 성도인가?
 다행히 흑자라면 자만하지 말고 다가오는 해에는 더 많이 남겨 흑자의 폭을 넓히도록 합시다. 유감스럽게도 적자라면 낙심하지 말고 내년에는 기필코 흑자를 내도록 심기 일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NEW KOREA TRAVEL SERVICES CST #2126850

새한여행사

" 당신의 출발을 가볍게 해드립니다. 여행은 새한여행사의 미소로 시작됩니다. "

대표 전화 (213)383-4988
가장싼비행기! 신속한서비스!

항공권	호텔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항공권 도매가격 • 반국경 가장 현요로 서울출발 미국행(영문+이민) • 동경, 홍콩, 태안, 미닐라, 동남아 가장 현요금 • 전유일 가장 현 요금 항상 보유 • 전유일 기차표 • 미국내선 가장 현요금 항상 보유 • 중남미표 아주 현 요금 • 단체 특별할인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상 필요한 시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라, 롯데, 워커힌, 리미디 르네상스 호텔대리점 및 전세계 호텔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원관광 • 해외이론관 • 성지순례 • 신촌여행 • 크루즈 관광 • 미국내 동 • 중 • 서부 정기관광 • 남미관광 • 다일Tour Packages • 중국 • 베트남 • 소련 비자대행

새한여행사는 전세계 모든 항공사의 공인 대리점입니다

KOREAN AIR, AIRBUS AIRLINES, THAI, JAL, ANA, CLIA, AIRTEL, AIRTEL

다주무료전화 1-(800)421-5489 FAX(213)383-6752
 2717 W. OLYMPIC BLVD., #203, L.A., CA 90006 (올림픽+뉴원프사, 나하은행 건물옆)
 Website: www.newkoreatravel.com E-mail: newkoreatravel@yahoo.com

양념게장 세일

1월 28일 까지 주문마감
 한박스 \$15.00 (medium Togo box)
 주문: A-1 마켓 275-9021
 (신옥주 집사)



Tip !!! 무우, 썩갓, 두부, 대파를 넣고 게장찌게로도 요리 가능.

혹시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
 (픽업은 1월 30일 하실 수 있습니다.)



알버커키 한인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주최

축 개업

Hair & Co.
 5901 Wyoming Blvd NE Suite T
 Albuquerque, NM 87109
 (505) 797-8087

(New Clients 15% Off)
 Hair Cut & Style
 Shampoo & Style
 Conditioning Treatment
 Color service
 Foil Highlight or Lowligh
 Permanent Wave & Style
 Permanet Hari Straightening
 Waxing

시세이도 화장품
 윤상옥 (Beauty Advisor)
 H: 890-4018
 B: 883-5900
SHISEIDO
 Dillard's 백화점
 2100 Louisiana Blvd Ne Ste 155
 Albuquerque, NM 87110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BQ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BQ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BQ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건축/페인트 Painting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란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부동산 Realtors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최귀분 Gui B. Bonaguadi: The Ingles Company Realtors (505-828-1366)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BQ (505-883-9009)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샌디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BQ (505-823-1678)

알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주택융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BBVA (Office 505-206-9963)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BQ (505-271-2633)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 (505) 296-0336

한의학사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BQ (505-710-7504)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514-2900)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화원/원에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 505-797-2211
 커튼우드 505-792-5111
 산타페 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틴 505-286-3535
 www.dahnyoga.com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5420)

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

겔럽 Gallup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5396)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종교 Church

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1441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안녕하세요 미주 한인회 도움이 필요합니다

폴리아미드 (나일론)PA6 PA66 구합니다 폐기되는 카펫에서각은 샴방가루,펠렛 PA6 PA66 섬유스크랩 취급하시는분 또는 구해주실 분 계시면 연락주세요 양은 얼마든지 관계없이 구매합니다

E-mail lsy1030@korea.com

MOBILE +82-16-850-9952 번입니다

방 세놓음

깨끗하게 집을 사용하실 한인분께 집을 세놓으려고 합니다.

주소:

12613 Copperwood Dr NE ABQ NM 87123

월세는 주변 시세보다 약간 더 싸입니다. 625.00+half deposit

2Br. 780 Sqft, laundry hook up ,ref. No pet ,바닥(floor)은 타일로 다 새로 깔았습니다.

꼭 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은 전화주시면 보여드립니다.

Tel: 213-507-7985

(우표 값이 61센트에서 64센트로 올랐습니다) 광야의 소리를 1년 동안 집에서 받아 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본인 이름 집 주소 64센트 우표 12장

또는 8불 짜리 check를

payable to "KUMC"로 써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f you want to receive this journal by mail, send by mail your name and address to following address with your \$8 check payable to KUMC)

To: Voice in the Wilderness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알버커키 박영숙 화가(www.youngsookpark.com)와 김수영 화가(www.geocities.com/hongsooyoungstudio)의 작품들입니다.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www.kaanm.com

stamp here
 64 cent 우표
 붙인 후 반으로
 접어서 발송

To: